제7강 테오도르 아도르노 : 진리, 가상, 화해

(1교시) J_Jgjin03_040105_01

테오도르 아도르노
(1903~1969)

◎ 계몽의 변증법, 부정의 변증법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근대의 합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계몽을 계몽하는 방식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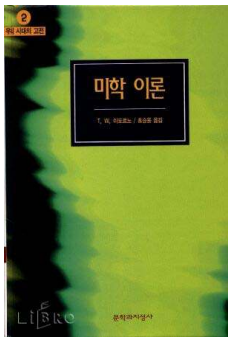
아도르노의 사상은 자연-사회-예술의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서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

먼저 자연적 측면에서, 근대적 자연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생태학적 비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모색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맑스주의적 관점으로 현대사회의 물화 현상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또 예술적 측면에서는 아방가르드 예술을 긍정하며 모더니즘 예술 실험을 미학적으로 정당화했다.

또 아도르노는 **『부정의 변증법』**에서 부정의 부정은 곧 긍정이라는 헤겔의 변증법의 도식 속에 들어 있는 '동일성 논리적 이성'의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차이'와 '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학이론
테오도르 W.아도르노
1997 / 문학과 지성사



◎ 헤겔의 관념론과 자연관

근대 합리주의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헤겔 철학은 관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헤겔에게 역사는 정신의 자기 인식과정, 즉 정신이, 자기 앞에 선 자연이 실은 자신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연을 객체로 정립한 후 이를 강제로 자기의 필요와 동일화한다. "모든 존재자에 주관성을 부여하는 일을 절대화하는" 그는 **자연 속에서 정신과 같은 것(법칙) 즉 인간 정신의 투영만을 볼 뿐, 자연 그 자체를 보지는 않는다.**

www.artnstudy.com

(2교시) J_Jgjin03_040105_02

◎ 아도르노의 헤겔 미학 비판

헤겔은 자연에서 오직 인간 정신과 동일한 것, 합리적으로 계량 가능한 것만을 취하고 자연의 자연다운 것은 무시해 버린다.

반대로 아도르노는 절대적인 합리성, 계산, 수식에 의해서 포착될 수 없는 통약 불가능한 질적 측면을 갖춘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으로 보았다.

◆ 헤겔에게 자연은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오직 인간의 정신적 파악에 적합한 한에서만 아름답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이 고대의 예술이라면 헤겔은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헤겔은 자연에 본질적 결함이 있다고 보았고, 결함이 있는 자연을 수정, 보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자연미는 예술미의 부속물이 되어버리고 인간은 자연을 필요에 따라 뜯어고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의 자연 지배 역사를 흔히 '진보'라고 부른다.

아도르노가 보기에 헤겔의 이런 자연관은 폭력적이다. 이러한 '자연의 인간화'라고 하는 것은 실상 **'자연의 탈자연화'**에 불과하다.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

◆ 현대 예술, 가상의 파괴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은 합리성과 획일성이다. 아도르노는 사물들의 고유한 질적 차이를 지워버리는 자본주의의 가치관을 동일성의 폭력으로 보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소통 거부'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그 역할을 **현대 예술**이 하고 있다.

현대 예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가상'이기를 포기한다. 회화는 대상을, 음악은 화성을, 시는 의미를 포기하고 연극은 부조리해졌다. 이것이 예술의 저항 방식이고, **현대 예술은 결국 합리성에 반하는 '자연'의 미메시스이다.**

www.artnstudy.com

(3교시) J_Jgjin03_040105_03

◎ 현대 예술의 영원한 탈주

자본주의 사회의 동일성의 폭력은 그것에 저항하는 현대 예술까지 포섭하려 한다. 자본주의 문화산업은 비판적인 작품이나 난해한 작품마저 체제 내에 포섭, 예술이 가진 비판적 잠재력을 무력화시키고 간단히 평균적 코드로 해석해 규격화한 후 대중에게 제공한다.
이 동일화의 강제에 대항하여 예술은 끊임없이 의미를 파괴하고 기대의 지평을 배반함으로써 사회와 구별되는 자신의 타자성을 주장한다. **사회가 행하는 동일화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예술은 급진적이어야 하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탈주'한다.** "예술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눈을 감고 이를 악무는 것이다." 운명을 건 이 끝없는 탈주를 통해 예술은 비인간적인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일 수 있다.

◎ 새로움, 수수께끼

아도르노는 또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인지 모를 자본주의의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비합리적인 사회'에서 더 이상 예술이 '아름다운 가상'일 수 없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가상'은 허구이고 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추해져야 하는 것이다.
현대 예술에서의 중요함은 **'새로움'**이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이다"**

예술은 진리를 갖고 있으나 그 진리를 개념적으로 표현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예술은 해석은 요구한다." 즉 현대의 해석은 작품이 완성된 후에 사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성립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이 때 해석을 통해 우리가 답을 내는 순간 작품의 진리는 우리 앞에서 또 다시 모습을 감추게 되고 끝없는 숨바꼭질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작품의 진리에 관한 최종적 해석을 거부하고 무한한 해석의 놀이를 풀어놓는 현대 예술의 구조를 아도르노는 "수수께끼"의 은유로 표현한다. 작품에 대한 최종적 이해, 궁극적 해석이란 있을 수 없다.
미적 모더니즘을 긍정하는 아도르노의 이론은 곧 아방가르드의 강령이라 할 수도 있다.

◎ 아도르노와 벤야민

벤야민이 복제 기술을 통한 예술의 보급을 아우라의 붕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데 반해 아도르노는 복제 기술을 통한 예술은 지각을 퇴화시킨다고 부정했다. 즉 벤야민이 대중문화를 진보적이라고 칭송한 반면 아도르노는 대중문화의 상업성을 비판한 것이다.
아도르노의 사상 밑바탕에는 벤야민의 영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이렇듯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www.artnstudy.com